

XR·메타버스 특화사업 발굴 나선다

전주시,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연중 접수

주차 공간 부족 단독주택·아파트 거주민 대상 주차장 조성비 일부 지원

전주시가 주택가 유희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독주택 거주민과 아파트 입주 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희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20면에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주차장 조성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조성 후 3년간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교통안전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로 방문하거나 전화(063-281-2368)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138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도왔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면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10일까지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 참여 지역 ICT 기업 모집

최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XR)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지역 ICT 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 발굴에 나선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오는 10일까지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에서 프로젝트 그룹 활동을 펼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정부의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과 발맞춰 지역 XR(가상융합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가동되는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는 지역 내 30여 개의 ICT 기업이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해 활동하고 사업과 모델을 도출해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총 6개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운영되

는 얼라이언스는 ▲디지털트윈 기반 경제플랫폼 ▲스마트팜 활용 가상융합 교육 플랫폼 ▲NFT 기반 미디어 콘텐츠 유통서비스 등 3개 프로젝트 그룹을 모집한 상태로,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분야의 3개 프로젝트 그룹(그룹당 4~5개 기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도내 XR 관련 기업이나 수도권 기업 컨소시엄, 유관기관·협회 등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은 사업계획과 활동 계획, 협력 기업별 역할 분담과 기업 소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모집 안내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ca.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와 진흥원은 지역 XR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변 확대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마중길 VR·AR제작거점센터와 스마트미디어 센터 등에서는 연간 1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 및 편집장비 등 이용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 내 관련 기업 종사자와 전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XR 온다(ONDA) 세미나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동력국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에 몰입하면서 XR 기술은 전 세계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가 기술과 ICT 기업 간의 융합을 도모하고 가상융합 경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청년 시각에서 발굴 정책 온라인 평가 실시

15일까지 '제5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제안 5개 정책사업

구직 청년들을 위해 취업지원 패키지 도입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자는 청년들의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제5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제안사업의 온라인 평가를 실시한다.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만 18~39세 청년 60명으로 구성된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단체다.

올 1월 활동을 시작한 제5기 청년희망단은 그간 정기·수시회의와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컨설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15개의 청년정책 사업을

발굴했으며, 시는 이 중 5개의 정책사업을 선정해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다. 온라인 평가 대상은 ▲청년 전주 문화포인트(전주문화 홍보) ▲청년네트워크(증명사진, 면접 스타일링 등 취업지원 패키지) ▲청년행복박스(전입청년에 청년정책 안내책자 등 제공)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강화(지역 활동단체 인건비 지원) ▲전주형 결혼축하금(청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등이다.

온라인 평가는 청년희망단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youthhopejonju)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youthhopejonju)을 통해 진행되며, 시민들은 가장 선호하는 정책사업에 투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3일 제안사업 발표회를 진행한 뒤 온라인 평가 결과와 합산해 추후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제안사업 중 즉시 반영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반영이 불가능한 아이디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활동을 시작한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청년소통공간 비빌 ▲청년 온라인플랫폼 구축 ▲청년취업 프로젝트 ▲청년캠퍼서 정책 ▲지역청년 JOB소통사업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발굴했으며, 실제 전주시 청년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제5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제안사업의 온라인 평가를 실시한다.

전북대 인근 카페 '2050 탄소중립' 실현 동참

전주시, 전북대 교내 7곳·구정문 인근 9곳 등 16곳과 '다회용 공유컵 사업' 추진

전북대학교 인근 카페와 학생, 교직원들이 1회용품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한다.

전주시는 6일부터 전북대학교 교내와 인근에 위치한 카페 16곳과 함께 '다회용 공유컵 사업'을 추진한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탈(脫)플라스틱'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사업은 카페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나가기 위해 카페 업소와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학 협력사업이다.



전북대학교 인근 카페와 학생, 교직원들이 1회용품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제로 플라스틱(zero plastic)'과 '플라스틱 프리(plastic free)'에서 따온 '제프리'라는 명칭의 다회용컵을 제작해 전북대학교 교내 카페 7곳과 구정문 인근 9곳의 카페에 배부했다.

음료 테이크아웃 시 제공되는 다회용컵은 16곳의 카페 중 1곳에 반납하거나 대학 내 곳곳에 설치된 반납함에 반납할 수 있다. 반납된 다회용 컵은 세척 및 소독 과정을 거쳐 카페에서

를 증명하는 쿠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에는 70여 개 이상의 카페가 몰려 있는 데다 학생들의 동선도 제한적이어서 다회용 공유사업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회용품 없는 청사 조성에 나선 시는 지난달 25일 시청사 인근 카페 18곳의 대표와 함께 '전주시-인근 카페 탄소중립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공용 텀블러 사용 ▲개인용 텀블러 보관 및 비치 ▲개인용 텀블러 이용 시만에 혜택 제공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대학생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1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올해 검정고시 114명 합격

올 한해 전주시지역 학교 밖 청소년 110여 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지난 달 11일 치러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총 67명의 청소년 중 66명이 합격해 98.5%의 합격률을 달성했다고 6일 밝

혔다. 이로써 전주시 꿈드림은 지난 4월 제1회 검정고시에서 합격한 48명을 포함해 올해 총 114명이 합격해 합격률 99.1%를 기록했다.

전주시 꿈드림은 그간의 운영 노하우를 통해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성과가 모두 높았던 기출문제 풀이와 기본 개념 교육을 병행해 운영한 것이 이

같은 성과를 나타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교실'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출제된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개념설명에 집중했다. 스마트교실에 참여한 청소년들 정원이 검정고시에 합격해 학습 효과를 입증했다.

이외에도 전주시 꿈드림은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1대1 멘토링, 인터넷 강의,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